
상부 위장관 경복부 초음파검사의 유용성

황정득 내과의원

전 득 수

목 적 : 일차 선별검사로써 상복부 초음파검사시 상부 위장관을 포함하여 검사 할 때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의뢰한 모든 환자 2,500명을 대상으로 상부위장관을 동시에 검사하였으며, 국소성 위벽비후를 나타내는 위암과 위양성 종양, 그리고 위십이지장 궤양만을 통계화 했으며, 위염을 나타내는 환자는 배제하였다. 상부 위장관 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한 환자 215명도 제외하였다.

탐촉자는 4 Mhz와 7.5 Mhz를 사용하였으며, 상부 위장관 전체를 검사하였다. 한 환자가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을 동시에 발병한 경우 1명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이들을 확인하기 위해 위장조영촬영과 위내시경을 동시에 또는 한가지 추가 검사로 확진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 환자 ($2500 - 215 = 2285$)명중에서 위암은 14명, 위양성종양은 5명, 위궤양은 47명이고, 십이지장궤양은 32명이었다.

초음파검사에서 위음성으로 나타난 3명은 위내시경검사에서 위궤양 2명과 십이지장궤양 1명으로 판명되었다.

초음파검사에서 위양성으로 나타난 8명은 위염으로 확진 되었다.

상부 위장관 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한 환자 215명중에서 위내시경검사에서 1명의 위암과 6명의 위궤양 환자로 진단되었다.

결 론 : 1차 선별검사에서 상복부 초음파검사 시 상부 위장관을 적극적으로 초음파검사한다면 증상이 없는 조기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와 유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